

우리센터, 몽고메리 카운티에 한국어 선거자료 제공 요청

지난 7월 18일 우리센터(사무국장 이현옥)는 대동라벨리아한인회(회장 게일스 김)와 함께 몽고메리 카운티 커미셔너 회의에 참석하여 선거 관련 한국어 언어지원 제공을 요청했다.

2000년 이후 펜주 내 아시아태평양계 주민의 수는 141% 증가했고, 2010-2020에 걸친 10년 동안 이에게 유권자 수가 55%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다.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, 67,000여명의 아시아태평양계 주민 가운데 36,000여명이 유권자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유권자의 10.5%에 달한다. 또한 몽고메리 카운티에는 펜주 내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가 있으며, 한인 수는 최소 13,000명으로 추정된다. 그러나 최소 10,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몽고메리 카운티 한인 유권자 가운데 불과 3,000여명의 유권자 목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. 미 전역의 한인 주민 중 70%는 이민 1세대로, 그 중 절반 이상이 영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. 우리센터 이현옥 (Mel Lee) 사무국장은 "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주민들은 투



18일 몽고메리 카운티 커미셔너 회의실에서 우리센터 및 닐 마키자 (Neil Makija) 몽고메리카운티 커미셔너-우리센터의 제공

표권 행사에 있어서 언어장벽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" 있다고 문제 제기하고, 몽고메리 카운티가 전정 카운티 주민 모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와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, 언어지원이야말로 그 첫걸음"이라며,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언어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 또한 40여년 간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해온 홍정환 씨는 언어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, "자연으로서 내 권리

를 제대로 행사하고 싶다. 잘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왔으면 좋겠다"며 바람을 전했다. 이 사무국장과 홍 씨의 요청에 몽고메리카운티 선거위원회장인 닐 마키자 (Neil Makija) 카운티 커미셔너는 "연계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해 준 우리센터의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한다. 오늘 이들은 수십 년간 지역 사회에서 일하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기본적인 권리의 행사에 대

해 이야기했다. 이에 우리는 이들이 누려야 할 투표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진지하게 고민하겠다"고 화답했다.

우리센터에 따르면, 이번 선거에 몽고메리 카운티 투표용지에 한국어가 포함된다면, 몽고메리 카운티는 전미에서 9번째로 투표용지에 한국어 번역을 제공하는 카운티가 될 것으로 보인다. 일리노이주 쿡(Cook) 카운티의 경우 지역 한인 인구의 규모가 연방법이 규정된 언어 접근성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음에도, 카운티와 시카고 시의 자발적 결정을 통해 한국어 선거자료를 제공하고 있다. 그 결과 해당 지역 한인 유권자의 선거 참여도 크게 증가했다.

우리센터는 지난 6년간 언어와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유권자 지원, 교육, 참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캘리포니아에서 800여명의 유권자 목록을 도왔다. 대동명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가운데, 몽고메리 카운티의 언어지원 제공 여부에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.